

## 베드로전서 강해

### 사랑하며 축복하며 ( 벵전 3:8~12 )

반태호 목사 / 2004년 8월

사도 베드로는 고난의 시대에 사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은 역경을 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은 능력입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는, 고난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성도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영원한 처소가 예비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11,12절에서는 이런 고난의 시대에 대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대에 먼저 다스려야 할 것은 육체의 정욕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를 핍박하고 부당한 대접을 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선한 행실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직장과 가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 **'좋은 날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본문 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지막으로”라는 말씀은 결론이 아니라 요약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대에서 고난을 복으로 이기는 삶을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궤휼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시오. 우리 속에서 고난을 좋은 날이 되도록 만드는 힘은 이것입니다. 서양 인사에 “좋은 날이 되십시오”라는 뜻을 가진 인사가 있습니다. 좋은 날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겪으면 “언젠가 좋은 날이 곧 오겠지요”, “좋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라는 말로 위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날, 좋은 때’는 만들어져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날이 있다는 기대를 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믿음 없이 인생을 걸어가면 결코 좋은 날은 없습니다. 좋은 날은 절대로 그냥 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내년이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날은 믿음으로 창조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땅은 타락한 땅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땅입니다. 죄악과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이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좋은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고난과 역경을 좋은 날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것들을 좋은 날로 만

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기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9절을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비결은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권을 사용하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복을 빌면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비는 것, 즉 축복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복을 비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못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면 약오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됐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제라도, 가까운 친구라도 정말 잘 되는 것을 축복하지 못합니다.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부당하게 대접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75세가 넘었지만, 그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4000년 전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에게 소망이 없는, 죽은 자와 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이, 소망 없이,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복의 근원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축복권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야말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두벌 옷도, 전대도, 여행에 필요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빈손으로 가는 그들에게,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먼저 복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마 10:11~13)

그래서 복을 빌면 무조건 수지 맞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축복하면 그것이 모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하나? 나도 힘든데, 복은 내가 받아야 하고, 도움은 내가 받아야 하는데, 지금 내 사정과 상황 속에서 한가하게 내가 누구에게 복을 비는가?"

고난의 때에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망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오히려 고난과 역경 앞에서, 우리를 부당하게 대접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복을 빌라".

## 복된 사람

고난 속에서 복을 빌라는 말씀에 형식적으로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적대적으로 대하고 험담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욕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을 빌려면 내 마음에 복이 있어야 합니다. 복된 마음이 있어야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 되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복을 빌 수 있습니다. 복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복을 빌기 위해서는 복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복된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체휼, 사랑, 불쌍히 여김, 겸손을 복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와 무정함과 냉정함과 엄격함을 가진 사람이 복된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껍데기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속이 바뀝니다.

하지만 예수 믿으면 껍데기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던 사람들이 돈이 생기고, 집이 없던 사람들이 집이 생기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겉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속이 바뀝니다. 냉정하던 내 마음이, 강박하던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냉정하던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동참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 파워웨이브 학생들이 광주에서 양로원과, 장애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수련회 회비를 받아서 편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운 날에 집에서도 시키지 않는 봉사를 시키다니.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섬기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선하고 깨끗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체휼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계발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계발해야 합니다. 계발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몰라서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마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좇아가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면 복이 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체휼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마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울 때 함께 울고, 다른 사람이 웃을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의 문제에 내 문제보다 더 관심을 갖는 이러한 마음을 계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이 마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 앞에서 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마음이 요즘 너무 약해졌습니다." "왜요?" "자꾸 눈물이 납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 소식만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워지고 선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서 멀어질수록, 그들을 외면할수록 이미 주어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매우 율법적이고 동정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그들의 삶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강박해집니다.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보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은 어려운 사람과 자주 부딪힐 때 생깁니다. 누가 어려운 사람을 진심으로 돕는지 아십니까? 돕는 사람이 돕습니다. 그 형편을 아는 사람이 돕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 가면 감동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가지 않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가지 않고, 가는 사람은 계속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 공홀이 풍성한 하나님

여러분, 정말 겸손한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공홀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이 '공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5번째 복으로 '공홀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공홀히 여기는 것은 능력입니다. 이 마음은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마음은 계발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할 줄 아는 사람, 그 애통함을 통해서 온유해진 사람. 온유함을 통해서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하나님의 의를 찾는 사람, 그리고 그 의를 넘어서 공홀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의의 자리에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를 넘어서 공홀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의 자리에 있으면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대하면, 하나님 앞에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라도,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대하시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선 저부터도 설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공의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은 공홀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닦쳤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제 아픔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왜 제 고통을 외면하십니까?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 눈물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 옆에서 함께 우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마음아파하시고, 공홀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공홀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나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큰 사랑을 베푸셨을까요? 공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홀히 여기시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4절은 우리가 원래 진노의 자녀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우리가 공홀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공홀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공홀히 여길 줄 알까요? 하나님의 공홀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공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공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정말 공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홀이 없으면서 겸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위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심으로 내 아픔으로 아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앞잡아보고 우월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힘을 발휘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려운 사람 앞에 서면 내 우월감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이 겸손해야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영혼만이 진정으로 겸손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를 계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 선으로 악을 대적하라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악한 일을 할 때, 나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다못해 혼자서 소리라도 질러야 속이 시원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면 내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괴로워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됩니다. 사단에게 힘을 더 부여해 줍니다. 악은 선으로 갚을 때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에게 악으로 맞서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욕하는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문제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축복할 때, 그 복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축복권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십니다.

복을 비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복을 빈 사람이 그 입술로 저주를 하거나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뒤에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남의 말 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험담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십시오. 듣기 좋은 말도 많은데 왜 험담을 듣습니까? 그리고, 남의 말 하는 사람은 남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 말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험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과 존경할 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 속에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시편 141편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숫군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이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운명이 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구하고 화평을 구하는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 하나님의 시간표

1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어지되 주의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을 비는 그 모든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말기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십시오. 좋은 날은 여러분이 창조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때라도, 이 날은 주가 지으신 좋은 날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을 빌고, 악에서 떠나고, 입술을 금하면서 주를 찬양할 때, 지금 여러분이 가진 고난을 좋은 날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항상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악과 부정적인 말과

궤사를 제하여 주시고,

항상 믿음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을

좋은 날로 만들며 승리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출처 : 온누리신문